

무안국제공항 관제사 기준인력 20명에 고작 7명 근무

충원률 35%에 그쳐...근무시간 증가 악순환 국민 안전 위협
주당 58.4시간 근무...제주항공 참사 기간 평균 62시간 근무

무안국제공항의 관제사 충원률이 기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지휘하는 관제사 부족 문제가 기존 인력의 근무 시간 증가를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윤종오(울산 북구) 진보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항별 관제사 현황 및 국토부 수립 인력상정 기준에 따른 인원 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관제사는 국토부가 수립한 인력 기준인 20명에 한참 미치지 못한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원률로 따져보면 35%로 전국 15개 관제소 평균 72.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 하늘을 관장하는 관제탑의 관제사 충원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15개 관제탑 가운데 관제사 충원률이 가장 낮은 곳은 여수 관제탑으로 31.2%에 불과했다. 이어 무안(35%), 사천에 위치한 여수도착관제탑(40%) 순으로 충원률이 낮았다.

여수 관제탑의 경우 1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근무 인력은 5명에 불과했고, 여수도착관제탑은 4명(기준 인원 10명)에 그쳤다.

항공기 운항이 비교적 적은 지방 공항이지만, 김해 접근관제탑(65.6%)과 울진 관제탑(80%), 대구 지역관제소(73%)와 비교해도 전남 지역 관제사 충원률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제사가 부족하다보니, 남아있는 인력의 근무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관제탑 관제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48.08시간이었는데, 무안공항의 경우 58.47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무안 관제탑 관제사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1시간, 62시간 수준이었다. 제주관제탑(41.6시간)과 비교하면 20시간여 많은 수치다.

무안 관제탑 관제사들은 올해 6~8월까지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3~66시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관제탑 관제사들의 근무시간도 53.9시간으로 무안관제탑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관제탑에 근무하는 관제사들은 항공기 조종사와 교신하며 안전한 이·착륙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관제사 부족에 따른 과로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한다.

윤종오 의원은 "관제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도의 안전직종임에도,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 초과노동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관제사가 수면 부족, 만성피로와 집중력 저하에 직면하게 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항공안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13일 고흥군 고흥읍 성산리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주요내빈들과 '전남형 만원주택' 기공을 축하하는 사습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고흥에 청년·신혼부부 '전남형 만원주택' 착공

사업비 180억원 투입...50세대 배정 최대 10년간 거주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월 1만원에 신축 아파트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진도에 이어 고흥에서도 첫 삽을 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고흥군 고흥읍 성산리 일원에서 '전남형 만원주택(고흥) 기공식'을 열고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증금 없이 월세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민선 8기 대표 주거 복지 정책 중 하나다.

출생률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은 15층 1개 동, 총 50세

대로 청년에게 26세대, 신혼부부에게 24세대가 배정된다.

총 사업비 180억원(도비 150억원·군비 30억원)이 투입된다.

고흥 만원주택은 전남개발공사 사행을 맡고 하늘종합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그 동안 공공에서 공급하던 주택들과 비교해 거주 면적이 25평형(청년), 33평형(신혼부부)로 상대적으로 넓다. 청년층의 취미 생활과 신혼부부의 출산 및 양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면적을 설계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고흥 전남형 만원주택은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며, 내년 하반기 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4월 진도에서 첫 전남형 만

원주택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진도 전남형 만원주택은 60세대(청년 30세대·신혼부부 30세대)에 공급될 예정으로, 2027년도 상반기 입주가 목표다.

전남도는 고흥에 이어 신안과 보성, 강진, 영암, 곡성, 장흥 등 6개 시군에서 만원주택 사업에 착수, 2027년까지 210개 가구에 집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공영민 고흥군수,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꿈과 희망이 시작되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야간관광 활성화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서둘러야”

홍기월 광주시의원 5분 발언

광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야간관광 전략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월(동구 1선거구)시의원이 13일 5분 발언에서 “야간관광을 활성화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기본계획 조기 수립과 국가 공모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야간관광은 평균 체류일을 0.7일 늘리고, 주간 대비 쇼핑 31%, 레저 27%, 외식 19%의 소비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ACC 하늘마당·사직공원 전망대·미디아트 창의벨트 등 자원이 있으나 경쟁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밤밤국 100선'에 광주는 사직공원 전망대 1곳만 들었고, 문체부 '야간관광 특화도시'에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조형물 추가보다 사진이 잘 나오는 장소, 이야기가 있는 야행 프로그램 등 콘텐츠 투자로 체류형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야간관광을 관광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했고 '예술 집콕 야행관광 공간 조성'(2024~2027, 272억원)과 '빛의 로드'(2022~2026, 190억원) 등 국비사업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도, 전담팀 구성...AI 미래도시 조성 총력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오픈AI와 SK그룹의 '전남 서남권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을 계기로 전남도가 전담팀을 꾸려 AI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

전남도는 13일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에너지 미래도시 기획전략본부'를 신설, 향후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AI·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미래도시 조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신설되는 에너지 미래도시 기획전략본부는 전담팀(TF) 형태로 운영되며 전략산업국장(3급)이 본부장을 맡고 기업도시담당관을 단장으로 해 미래도시 전략팀과 개발기획팀을 두는 등 14명이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기업도시 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계통 확충을 통한 에너지 공급 방안 마련 등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의 '지방 중심 국가균형발전'과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 세계적 투자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 중심지이자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회장은 지난 1일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와 만나 메모리 공급 의향서와 전남에 서남권(전남) AI 데이터센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 556마리 구조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3~9월 동안 야생동물 556마리를 구조·치료해 191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수달과 팔색조 같은 천연기념물까지 보호 성과가 이어졌지만, 번식기 미야와 건물·방음벽 충돌 등 도심 위험 요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구조 개체 중에는 수리부엉이 2마리, 팔색조 4마리, 수달 3마리, 하늘다람쥐 2마리, 새매 3마리, 남생이 1마리 등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포함됐다.

도심 서식권이 넓어지면서 보호종과 사람이 맞닿는 접점이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